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uly 7, 2016 Vol. 536

각자 삶의 처소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곳에 나아온 코스탄들이 찬양 중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kostausa 홈페이지

라마단 끝났어도 기도는 계속돼야

밤낮없이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는 IS 테러로 지구촌은 여전히 소란하다.

선량한 서민들의 고귀한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다.

무슬림의 라마단 기도 기간이 끝났어도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계속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S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잔혹한 살인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스도인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들 수 있음도 잊지말고 기억하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IS의 극단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자. 복음을 전하자.

기도만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16KOSTAUSA 시카고 컨퍼런스 美전역 한인 청년·학생 디아스포라들 함께해

2016KOSTAUSA 시카고 컨퍼런스가 일리노이 주 시카고 소재 휘튼 칼리지에서 열렸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FOR GOD SO LOVED THE WORLD)(요3:16)로, 4일~8일까지 계속됐다.

이 컨퍼런스는 美전역에 흩어진 한인 청년·학생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공동체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속한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배우고, 나누며, 예배하는 자리이다.

컨퍼런스 일정은 선택식 세미나로 진행되며, 다양한 섹션 중,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다섯 개의 세미나를 통해 성경적 시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전체 집회 강사로는 채종욱 선교사(미국 코스타 공동대표),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 등이 초청됐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KOSTAVOICE.ORG를 참조하면된다.

바람에 흩날리는 티베트인들의 기도 깃발. ⓒAsian Access

"티베트서 불교인 20만 명 '예수님 영접'"

라마승려 62명도 '회심'… 하나님 사랑에는 불가능 없어

해발 약 8,84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 위치한 중국 티베트 지역에 최근 불교 승려 62명을 포함해 20만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다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 NGO' 아시안액세스(asianaccess.org)가 지난 6월 17일경 밝혔다.

특히 최근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티베트인 중 대부분은 불교 신자이지만 무슬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안액세스 조 핸들리(Joe Handley) 대표는 "작년 한 티베트 라마(불교) 승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가 됐다"며 "이후 그는 티베트 지역 대규모 지진이 난 지역의 사람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핸들리 대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씨가 성장해 62명의 라마 승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돌아왔다"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작년 한 해만 20만 명 이상의 현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헌신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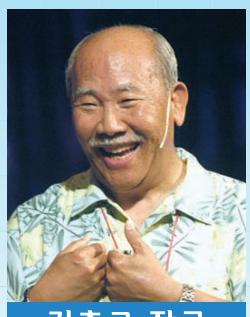
특히 핸들리 대표는 이 같은 엄청난 회심의 사건의 배경에 대해 "작년 엄청난 지진의 여파로 고통 받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했다"면서 "재해를 만난 티베트인들은 불교나 힌두, 다른 기타 종교 단체들이 지진의 잔해 속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이 힘든 시기를 이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예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안액세스는 교회 지도자들의 훈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장기적 영적 성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 승려의 삶을 잘 아는 이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 외에도, 지역 사회에 깊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51)383-5583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2016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 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주관 :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문의 : 기도원 (951-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 선착순 150명
대상 : 남가주 지역 작은교회 청소년 (6 - 12 학년)
※한교회에서 15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11일(월)
등록비 : 무료 (Free)
등록방법 :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Email : fgpmyouth@gmail.com
Fax : 951-928-4017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설립자, GLDI대표)
새라 김 사모
(TVNEXT 대표)
노형건 선교사
(미주복음방송)
옹기장이 선교단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선우권 목사.

'교회부흥과 히브리 원문 설교 세미나'가 6월 27일~29일까지 다우니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원로목사회 신임 임원들. (왼쪽으로부터) 최학량 친교부장, 김민희 선교부장, 박용석 회원부장, 신원철 회계, 최대준 서기, 신희성 총무, 최훈일 고문, 조영제 회장, 홍순도 제1부회장, 안덕원 제2부회장.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부흥하면 돼"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 위한' 선우권 목사 초청…교회 부흥과 히브리 원문 설교 세미나 개최

캘리포니아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를 위한 '교회 부흥과 히브리 원문 설교 세미나'가 6월 27일~29일까지 선우권 목사를 강사로 다우니제일교회(담임 안성복 목사)에서 개최됐다.

LA 충신교회에서 목회하기도 했던 선우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여러 교회를 개척해 성장시켰다.

그리고 4년 전 현재 시무하고 있는 세종온누리교회를 개척해 출석 성도가 현재 1천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약 6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등록한 이번 세미나에서 선우 목사는 세종온누리교회의 전도 방법과 새가족 사역을 소개하는 한편, 목회자들이 설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시했다. 그는 강의 동안 히브리 원어와 유대 문화에 근거해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설교로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부흥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제부터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부흥하면 된다"고 격려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원로목사회 총회 개최"

신임회장 조영제 목사 선출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이하 원로목사회)가 제70회 총회를 6월 28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개회예배는 회장 최훈일 목사의 인도로 시작돼 제2부회장 홍순도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제1부회장 조영제 목사가 "바울의 신앙관(행 20:24)"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각부 보고에 이어 임원을 선출, 인준했다.

회장에는 제1부회장이었던 조영제 목사가 선출됐으며 제1부회장에 홍순도 목사, 제2부회장에 안덕원 목사가 선출됐다.

또 고문은 최훈일 목사, 총무는 신희성 목사, 서기는 최대준 목사, 회계는 신원철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그리고 회원부장은 박용석 목사, 친교부장은 최학량 목사, 선교부장은 김민희 목사가 각각 유임됐다.

김준형 기자

사랑의띠선교교회가 창립 17주년 감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다섯 번째) 담임 김천환 선교목사 부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의띠선교교회 창립17주년 감사예배 드리고…엘림장애인선교회 LA지부 섬김에도 감사

사랑의띠선교교회(담임 김천환 선교목사)가 창립1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지역 복음화에 헌신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김천환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주님 감사를 드려요' 입례송, 대표기도, 성경봉독, 엘림장애인선교회 산상대성회 동영상,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오는 7월 18일~22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중앙기도원에서 열리는 엘림장애인선교회 주최 제27회 장애인산상대성회 참석과 단기 선교 집회차 본국을 방문할 김천환 목사를 위한 특별기도 시간을 갖은 후 임상철 목사의 격려사가 있은 후 김천환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감사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케익을 커팅하며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와 그동안 어떻게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를 나누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김천환 목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오직 믿음 하나로 풋대를 바라보며 달려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게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다"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는 것이다"며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선교회가 해마다 본국에서 열리는 장애인산상대성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이에 있다"고 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는 해마다 7월 중순경 장애인산상대성회를 개최하고, 세계 각지에서 오는 장애인들을 섬기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이 대성회는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3천여 명이 참석하며 '진정한 이웃 진정한 섬김'을 보여준다. 8백여 명의 국군장병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사역이다. 문의는 213-736-6625로 하면된다.

이영인 기자

"제30회 미주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수상자 발표"

과거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의 창립 33주년 기념 행사 및 크리스찬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던 모습.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가 2016년 제30회 미주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시 부문 당선자는 김선민(고난 뒤에 생명은), 가작은 임성진(여름의 오후), 수필부문 당선자는 나두섭(야생화), 가작은 최수잔(노포시대), 소설부문 당선자는 문성화(마지막 복권), 가작은 김승년(낙화)이 각각 당선됐다.

시상식은 오는 7월 30일(토) 오전 10시 한미장로교회(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에서 열린다.

이 시상식은 작가의집에서 후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회장 정지윤 목사(213-249-0771) 또는 총무 조애영(310-982-0011)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라흥채 목사.

라흥채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사역자 위한 라흥채 목사 초청 세미나 열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가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교회 담임)를 강사로 6월 30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남가주 지역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 솔로몬대학교와 임마누엘선교교회가 주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백지영 목사(솔로몬대학교 총장,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되어 라흥채 목사가 "전도자가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소연 목사가 이끄는 찬양 율동팀이 공연했다.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부회장)가 헌금기도하고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최근 남가주목사회 주최로 수 차례 세미나를 인도했던 라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니엘서의 예언에 근거해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목회자들이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라흥채 목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1996년 뉴욕제자들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목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 다양한 책을 저술했다.

김준형 기자

우성 박용만 탄생 135주년기념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발대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 박용만 탄생 135주년 기념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발대식"

총재 오병익 목사 추대

박용만 기념재단(회장 박상원)은 5일 오전 11시 LA한인타운에 위치한 JJ그랜드호텔에서 '우성 박용만 탄생 135주년 기념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박상원 회장은 고 박용만 장군의 "군인정신과 독립정신을 새기며 1000만 한국인 미국이민운동 발대식을 개최하게 돼 감사하다"며 "박용만 선생이 추구했던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환으로 1000만 명의 미주한인시대를 빨리 열겠다"고 기념사를 대신 했다.

이 운동의 총재직을 맡은 오병익 목사(남가주벧엘교회 담임)는 "한인 2세대들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이다. 크리스천 리더쉽이 미국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광석 회장(영화인 협회), 김진이 회장(LA 시민권자협회), 권성주 회장(애국지사 후손 대상수상자) 등이 축사했다.

한편 박용만 기념재단은 박용만 장군과 이민선조의 업적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년 기념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인규 기자

박주은 교수 피아노 독주회

"요르단 난민 아이들 돕기 사랑의 콘서트"

요르단 난민 아이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가 열린다.

IDEAS 선교단체는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르단 저소득층 아이들과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학교에 매년 세계적인 저명 강사를 초청하여 문화교육선교를 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현재 덴버주립대학 음대 교수인 박주은 교수가 초청됐는데, 특별히 요르단 난민 아이들을 위한 피아노 연주와 교육의 문화선교 후원을 위해 마련된다.

또 이번 콘서트의 특징은 박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로 열린다는 데 있다. Torrance Young Artists Orchestra는 협연으로 참가한다.

한편 박주은 교수는 콘서트 후 오는 7월 15일 직접 요르단을 방문하여 난민 아이들을 가르치 등 문화선교를 펼치게 된다.

*일시: 7월 9일(토) 오후 7시
* 장소: 주님세운교회
*주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문의: 310-325-4020

박주은 교수.

"제13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7월 17일(주일) 오후 7시

1999년 6월 LA한인타운에 설립되어 지난 17년간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전세계를 향한 장애인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한다.

지난 17년간 5만명 이상의 불우한 지구촌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효과적인 복음을 전해 온 이 선교회는, 이번 행사의 후속사업인 "제34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통해 특별히 휠체어 선적 1만대를 돌파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시: 7월 17일(주일) 오후 7시
*장소: 윌셔연합감리교회
*주소: 4350 Whilshire Blvd., LA, CA 90010
*출연진: Sop. 박유진
LA남성선교합창단
SCDC수화찬양팀
유엔젤보이스, SDM찬양팀
*문의: 323-731-7724

"동양선교교회 창립46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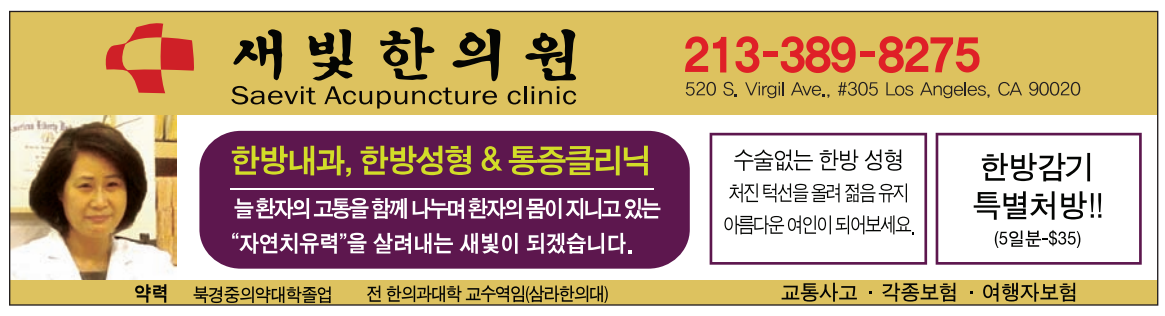
"감사 음악회 및 부흥회"

LA 한인타운의 역사와 함께 해온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해 감사음악회와 감사부흥회를 연다.

먼저 오는 7월 17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옹기장이찬양선교단, 아베 마리아로 유명한 가수 김승덕, 색소포니스트 박찬경, CCM 루키 대회 대상 장슬기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본당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어 7월 29일(금) 오후 7시부터, 30일(토) 새벽 5시 30분과 오후 7시, 주일예배 시까지 조용중 선교사를 강사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의 부흥회를 연다. 조 선교사는 GP선교회 미주 및 국제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국제개발 NGO인 글로벌호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장소: 동양선교교회
*주소: 423 N Oxford Ave, LA, CA 90004
*문의: 323-461-0791



21차 D2BD 서북미 청소년 여름 캠프가 6월 29일~7월 1일까지 타코마 중앙선교교회(담임 김삼중 목사)에서 진행됐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되리"

21차 D2BD 서북미 영어 청소년 여름캠프…'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 주제로 열려

서북미 지역 청소년 영어 여름캠프 D2BD(Dare to be a Daniel)가 지난 6월 29일~7월 1일까지 타코마 중앙선교교회(담임 김삼중 목사)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며 은혜롭게 마쳤다.

타코마기독교회연합회와 서북미한인침례교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21차 D2BD 캠프에서는 서북미 지역 19개 교회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빌립보서 4:4)"이란 주제로 2박 3일 동안 복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

캠프는 김주만 목사, 스티브 한 목사, 죤 앳킨스 목사 등 5명의 강사들이 나서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캠프를 준비한 김명신 목사는 "D2BD를 통해 올해도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며 "참가 청소년들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은혜 받은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추후 계속될 D2BD 청소년 연합 캠프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캠프 디렉터인 신영재 목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며 "캠프를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아낌없는 협력으로 성원해 주신 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캠프는 타코마 중앙선교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학생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등 서북미 지역 교회에서 후원했다.

한편 D2BD 캠프는 고 최모세 목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청소년 부흥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美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페루 사랑의 집짓기 운동 계속

美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정기예배를 열고 콜롬비아 단기선교 준비사항과 '페루 사랑의 집짓기 운동'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6월 정기예배를 6월 29일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이사장)에서 드리고 '페루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갔다.

이날 예배는 김홍석 목사(해외국장)의 사회로, 기도 조상숙 목사(협력국장), 말씀 박진하 목사(고문), 합심기도 인도 김홍석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자문위원) 등으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전4:7~1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미약하게 시작됐지만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연합의 힘으로 2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떡과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협력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2부 회무에서는 오는 8월 15일 출발하는 콜롬비아 선교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페루에 사랑의 집 4채를 지을 수 있는 후원금 6000불이 이미 마련됐음이 보고됐다.

미동부기아대책은 후원금을 보내 페루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1500불이면 현지에서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지속적인 헌금과 사랑의 손길을 다짐했다.

미동부기아대책 회원들은 지난해 8월 17일~22일까지 페루 단기선교 활동을 통해 현지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직접 실천한 바 있다. 당시 회원들은 직접 목재를 들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현지인들을 위한 집을 지었고 현지인들의 큰 감동으로 이어졌다.

한편 콜롬비아단기선교 파송예배는 오는 7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순복음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자문위원)에서 열린다.

오네시모의 독백

김 영 언 저

23. 제국과 천국

진탕 술을 마시고 낯선 여인과 몸을 섞고왔다. 상관 이레니우스 변호사가 출두해야 하는 법원 일정을 조율하느라 간 로마출장 중에. 이제 안면이 터서 술자리를 같이하게 된 로마고위층 관계자는 내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며 그동안 몰랐던 별천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일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오고간 몇 순배의 포도주는 찰라의 환락으로 나를 이끌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순진하고 모범적이던 나였다. 신앙 이후 더욱 고지식해진 내 성품은 일로 성공하는 데에는 종종 방해가 되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늘 어느 이상 깊어지지 않았다. 물론 적지 않은 이들이 내 그런 품성을 격려하였지만, 내 맘속에는 경건함에 대한 추구보다는 늘 한켠 일탈을 꿈꾸는 욕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는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까. 제국에 사는 내게 천국의 윤리는 기쁨의 동아줄이 아니라 부담스런 숙명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죄인이로다. 베드로가 순교 전에 남긴 편지의 글귀가 오늘 내 마음을 후벼판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4. Mens Sana in Corpore Sano

멘스사나 인 코포레사노.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최근 명성을 얻기 시작한 시인 유베날(Juvenal)이 한 말이다. 우리 로마인은 몸을 가꾸는데 참으로 힘을 쏟는 민족이다. 몸이 건강한 뒤에야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이 깃들 것이라 믿는다. 황제는 대형욕탕을 건설하는 것을 임기내의 주요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욕탕 옆 방들에는 체육시설이 가득차 있다. 신분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너무나 인기를 얻자 원로원은 일반인의 욕탕 이용을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수도로 마뿐 아니다. 속주의 주요도시에도 건설붐이 일어 이곳 골로새에도 최신식 욕탕이 들어선지 오래다. 예수의 도를 받아들인 골로새의 교우들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아무리 바빠도 일이 끝나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 체육관에 들르는 이가 상당하다. 그런데 문득 생각하니, 육체의 건강이 건전한 정신(mind)은 몰라도 영혼(soul)의 건강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듯 하다. 육체 안에 정신 뿐 아니라 영혼도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겠지만.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은 무엇으로 추구해야 하는가. 그 방법론은 내게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말씀을 문설주에 쓰고 주야로 외워야 하는 것인가. 이방인인 우리가 쓰고 외어야 할 말씀은 예수와 사도의 가르침에 그치는가 아니면 유대의 율법과 역사를 포함하는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유대의 경전을 로마인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나누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방언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뒤 기도에 집중하는 교우들이 많다. 예수가 산상에서 유명한 기도문를 가르쳐 주기 직전,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듣는 이방인은 조금 서운한데, 나는 오히려 유대식기도나 방언이 더 중언부언 같다.

어쨌거나 육체건강을 위해 쏟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자신의 영혼건강을 위해서 쓰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라는 바울사도의 선언과 달리, 많은 교우가 구원의 황홀한 체험이 지나간지 얼마지 않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본다. 오늘 문득 일주일에 한번 모여 예배에 참여하는게 영혼을 위한 목욕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영혼건강을 위한 목욕탕인 셈이다. 〈계속〉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 : 14~2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1.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씀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1절부터 13절까지 출애굽의 과정과 모세의 시종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하며 지난 역사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만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 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패를 자기 이름으로 달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지덕지하면서 감사와 찬송가운데 더 잘 섬기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지를 않고 유브라데스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다시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참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제사 드리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며 자신의 집에 귀신들이 더 많이 와서 자신들을 더욱 못살게 괴롭히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라는 행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0~21절의 말씀을 처신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고전10:20~21)

참으로 염치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사도 참여하고 성찬에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해달라는 온갖 요구와 주문만 있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달라고 보채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순수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배우고 순수한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은 순수하고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듣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그래서 애가 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권력있는 사람들 더 의지하여 우상을 만들고, 물질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더 커서 또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소망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문을 당해도 하늘나라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하늘의 소망을 결신하려는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그때 우리를 요긴하게 들어 쓰십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하나님은 공인하시고 보증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신실한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는 사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따라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후 2대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아니어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애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버려야 한다. 버리기 싫으면 차라리 멸망의 길을 택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16~18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의 설교는 매우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강력한 질책을 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즉,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여호수아 자신이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일편단심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타까워하며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자가 안타깝게 부르짖고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과 목회자의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목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줄 알기에 그것을 아는 목자가 양떼의 잘못된 신앙을 볼 때 불안하게 보여지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타는 심정으로 양떼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더 정열을 쏟는다면 틀린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게 분명한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이율배반적이고 배은망덕한 삶은 멸망을 재촉하는 삶이요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에 따르며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신앙고백을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저분한 생각과 오염된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대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3. 속지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잠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생리가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시켜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기업의 후사로 우리를 가꾸시며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날 때 그 인생의 결과가 비참할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여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성과 애정을 성도들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이 다른 것들을 정성스레 섬기면 질투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채찍질 하고 징계하심은 아직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이며 기대가 있고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새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1~25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는 다짐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겜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짐승을 죽여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죽은 짐승은 짐승 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며 이 언약은 죽을 지경에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뜻을 좇는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 받으십시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교회이전 감사예배

초/대/합/니/다

나눔과 섬김의교회가 새 성전을 단장하여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 김종용 목사

안기정 목사

일시 : 2016. 7. 10(주일) 오후4시
장소 : 나눔과 섬김의 교회(벌몬과 베니스)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문의 : (213)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타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쇼설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애국과 사회개혁 활동(I)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복음 선교를 위해 왔다. 그러나 복음 선교는 단순히 예수만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미 살펴 본 바 같이 의료, 교육 등 사회 다방면에서 다각도로 진행됐다.

그 중, 수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왜곡된 전통이 복음과 상충되면서 서서히 그 문화가 개혁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애국 애족 활동과도 직결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회부터 몇 차례에 걸쳐 초기 교회의 이 부분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제는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화하고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일제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외 정책 수행을 위해 소위 '삼인(三刃)'이라는 음모를 획책했다. 하나는 러시아 황태자를 암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전권대신을 처치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조선의 국모(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병탄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인물이 민 왕후라 판단하고, 왕후 제거를 구체화했다. 일제는 마침내 민 왕후를 침전에서 살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는데 이 사건이 을미(乙未)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을미사변'이라 한다.

언더우드 부인 릴리어스는 궁중에서 자주 만난 왕후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왕비의 모습을 옮겨 보기로 하자. " [왕비는] 약간 창백하고 마른 편이었으며, 날카롭고 빛나며 꿰뚫어 보는 눈을 갖고 있었다. [나의] 첫눈에 그녀가 무척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안면에 지적이고 강한 특징이 있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깨닫게 된다. 그녀가 대화를 시작하면, 생동적이고, 순수하고 해학(諧謔)에 넘치며, 안면에는 밝은 빛이 가득하여, 단순히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훨씬 뛰어넘는 매력에 매료된다. … 아세아 대부분의 귀족 여인들이 지닌 지식은 중국의 고전에서 배운 것이 고작이지만, 왕비는 폭넓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행하며, 애국적이고 헌신적이어서 자기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과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 글에서 민 왕후는 범상한 여인이 아니고, 한 시대를 뒤흔들 만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조정은 군대의 근대화를 위해 일본 장교를 초빙해 2개 대대 군인을 교련시켰다. 이것을 훈련대라 불렀으며 모두 8백 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들로 하여금 궁성을 수호하게 하였으므로 궁성에는 일인들과 친일분자들로 들끓고 있었다. 일제의 이등박문(伊藤博文) 내각은 간교한 육군 중장 삼포오루(三浦梧樓)를 주한 일본 영사로 파송하여 왕비 시해의 임무를 주었고, 강본유지조(岡本柳之助)를 행동 책에 임명했다.

1895년 10월 8일 드디어 영사 명령에 의해 일본 군인들과 낭인(浪人)들로 구성된 암살단들이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범궁 했다. 환도와 호신용 총을 소지하고 고문관, 순사 등 60여 명이 왕비 제거의 뜻을 품고 있던 대원군의 사주를 받고 미국인 군사고문 다이(W.M.Dye, 茶伊) 장군 휘하 궁정 수비대를 몰아내고 야수처럼 궁안으로 쳐들어왔다. 한 일본인은 고종이 거처하는 침전에까지 들이닥쳐 왕의 신변을 향하여 육혈포를 발사하고 어전에서 궁녀를 구타하고 이리저리 끌어당기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 궁내부 대신 이경직(李耕稷)이 그 방 안에 있다 부상을 입고 포복하여 추녀 끝으로 나갔으나 일본인들이 쫓아가서 어전에서 찔러 살해했다. 왕세자는 또한 다른 곳에서 붙잡혀 끌려갔는데 관과 신발이 벗겨져 망가졌다. 칼을 들이대고 왕후의 처소를 물었으나 다행히 상처를 입지는 않고 급히 고종의 처소로 달려가 몸을 피했다. 폭도들은 세자빈의 머리채를 잡아채 발로 차고, 구타하고 질질 끌면서 왕비의 위치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죽어 있는 군인들 시체 곁에 내팽개쳐 놓고 그대로 사라졌다.

자객들은 왕후가 머무르고 있던 건청궁(乾淸宮)의 각 방을 찾아 헤매다 조금 깊숙한 침전에 있던 왕후를 찾아냈다. 왕후를 끌어내 칼로 몇 번을 내리쳐 현장에서 시해했고 다른 궁녀 셋도 함께 찔러 죽였다. 그들은 방 안에 있던 보물을 약탈하고 궁녀들을 끌어내어 왕후 진부를 확인했다. 그런 후 아직 절명하지 않은 왕후를 홑이불로 둘둘 말아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녹원(鹿苑) 수림(樹林) 속으로 옮겼다. 몸에 석유를 붓고, 장작더미를 에워쌓은 다음 불을 질렀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꽃에 석유를 계속 부으며 태웠다. 후에 그 곳에 가 보니 몇 조각의 뼈만 남아 있었다. 한 나라의 국모를 이렇게 처참하게 시해하고 유린한 만행은 일찍이 인류 역사에 다시 없었던 야만적 작태로 한 외국인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믄 극악무도한 참변"이라고 술회 했다.

이 때 모든 광경을 목도한 외국인 두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미국인 군사 고문 다이 장군과 러시아인 전기 기술자 사바틴(Sabbatin)이다. 이 사건은 이들 목격자들에 의해 외부에 자세히 알려지게 됐다.

이런 사실이 일제의 흉계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이 미국 공사관 등 재한 외국 공사관에 알려지면서 세계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일제는 어쩔 수 없이 삼포 공사 이하 이 일에 가담했던 47인을 구속했다. 이들을 광도(廣島)에 압송, 투옥하고 모살(謀殺) 및 흉도취집(凶徒聚集)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일제의 하수인에 불과 했던 법원은 그들에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소(免訴)판결을 내려 석방하고 말았으니 저들의 죄가 또다시 하늘에 다았다. 삼포와 그의 일당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삼포는 민중들의 영웅이 됐다. 그들 일당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되었음을 당연히 여겼다. 돌이켜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말에 광도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온 도시가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수 십 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일은 정의를 외면한 곳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사람들은 외롭다.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이다. 외롭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매달려 산다. 문자와 카톡과 이메일을 수이시로 점검한다. 페이스북을 점검한다. 또한 문자와 카톡을 보낸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초조하게 기다린다. 외롭기 때문이다. 답신이 늦어지면 불안해한다. 때로는 버림받은 느낌,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왜 우리는 이토록 외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 우리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다. 스스로 넉넉한 존재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영성가들은 '외로움(loneliness)'을 넘어 '고독(solitude)'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외로움(loneliness)과 고독(solitude)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고독은 외로움보다 조금 더 깊은 세계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세계이다. 고독은 외로움의 고통을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경험하는 내면세계이다. 영성가들은 고독을 사랑한다. 고독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으로 들어가 고독을 즐긴다. 고독은 '홀로 있음'이다.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홀로 있음'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홀로 있음'이다. 거짓 자아가 아닌 '참된 자아 앞에 머무는 홀로 있음'이다. 외로움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홀로 있음이라면, 고독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홀로 있음을 의미한다. 고독 가운데도 깊은 고독이 있다.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강을 건너야 한다. 외로움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 깊은 고요함을 맛보게 된다.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가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생수를 마시게 된다.

글도 깊은 글이 있다. 맛도 깊은 맛이 있다. 사람도 깊이 있는 사람이 있다. 신앙에도 깊은 세계가 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깊음의 원천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고전2:10).

고독을 통해 우리는 내면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밖을 보던 눈이 안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칼 융은 "우리의 시력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에만 또렷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가꾸라고 권면한다(벧전3:3~4). 깊은 고독은 내면의 고독을 의미한다. 토마스 머튼은 "내면의 고독 외에 참된 고독이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언어와 인격은 깊은 고독 속에서 무르익는다. 우리의 관계는 깊은 고독 속에서 더욱 친밀해진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깊은 고독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든다. 우리의 존재를 넉넉하게 만든다. 예수님은 고독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셨다. 예수님의 깊은 깨달음과 깊은 진리와 깊은 사랑은 깊은 고독 속에서 흘러나왔다. 날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성 훈련이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

홈커밍데이 Homecoming Day

러브 투게더

Love Together

2016년 7월 10일(주일)

남가주 벧엘교회를 오셨던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에 한 줄기 생수처럼
속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특별한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잔치에 귀하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디 귀한 걸음 하셔서 이 시간의 특별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웃음과 감동이 있는 축제 (최덕신 전도사)

- 찬양사역자
- 작사작곡가

CCM아티스트,
프로듀서
서울대 음대 성악과 졸업(1985)
주찬양 선교단 사역(1981-1997)
현, 주찬양미션대표
국제푸른나무홍보아티스트

남 가 주 벧 엘 교 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714) 886-2562

포럼 후 주요 참석자들이 '하트'를 그리고 있다. ⓒ포럼 제공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위한 탈동성애 인권운동의 방향"

탈동성애인권포럼 제5차 세미나…동성애 합법화 결사 반대

탈동성애인권포럼 제5차 세미나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탈동성애 인권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측은 "오늘날 동성애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됐고, 이대로 방치하자니 국가와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참담하고, 저들과 맞서자니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 되고 말았다"며 "더욱이 기독교 대국인 미국마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최종병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군형법 92조 수호, 동성애로부터 시민헌장 수호, 동성애 교과서 반대, 동성애 영화·드라마, 퀴어축제 등과 맞서 연일 거리로 나와서 싸웠지만, 저들은 미국 오바마 정권과 유엔을 등에 업고 '인권'을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저들의 하수인이 됐고, 상업주의 기업들과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까지 동성애 이슈에 합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물론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동성애 정책과 문화 등 동성애에 관한 어떤 것도 결사반대하며 복음의 신념을 지켜나갈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지혜가 저들보다 앞서야 하고, 저들보다 앞선 하늘의 지혜로서 저들의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저들 속에 신음하는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수읍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미국에서 관련 활동을 진행 중인 김태오 목사 및 김사라 사모(TVNext)와 최대진 기자(CTS)가 발표했으며, 고영광 총무(탈동성애인권연대)가 증언에 나섰다.

개회행사에서는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사회로 임경호 목사(순복음뉴라이프교회)가 개회사, 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 축사했다.

또 진명순 대표(탈동성애인권연대 후원회장), 최충하 목사(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 서기),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수호연대 대표), 홍영태 목사(바성연 공동실행위원장) 등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대웅 기자

2016성서학대회가 3일~7일까지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막개최됐다.

"경계를 넘어서"

성서학회(SBL) 국제대회 개최…전 세계 학자 5백여 명 방한

세계적 성서학회인 SBL(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의 여름 국제대회 '2016 International Meeting'이 3일~7일까지 '경계를 넘어서(Crossing Borders)'를 주제로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됐다.

SBL은 매년 미국에서 연례 대회(Annual Meeting)를, 이와 별도로 매년 여름 전 세계를 돌며 국제대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에서 국제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5년 싱가포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 세계 37개국에서 5백여 명의 학자가 방한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구약학회와 한국신약학회를 중심으로 150여 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한국에 잘 알려진 북미·유럽의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서는 4일부터 100여 개 분과에서 신·구약 성서와 고대 근동, 그리고 오늘날 동북아의 상황과 관련된 각종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왼쪽으로부터) 신용기 장로, 전대구 목사, 황태윤 목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필리핀 선교 과소평가 아쉬워"

40년사 발간 기념해 기자회견 개최…있는 그대로 알려졌으면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의 역사와 평가, 현지 교회의 성장사, 비전과 미래 등을 망라한 책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 40년사」(크리스천언론인협회)가 발간됐다.

이 책을 펴낸 '발행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 크리스천언론인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내용과 의미 및 배경 등을 소개했다. 기자회견에는 발행위 집행위원장 전대구 목사, 발기인 대표 신용기 장로, 편집위원장 황태윤 목사가 참석했다.

이 책은 지난 1974년 부활절을 한국교회 필리핀 선교의 시작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각 교단의 선교사 파송 역사를 연대별로 기록하면서, 선교 초기부터 2천 년 이전까지를 '협력선교의 시대'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개별선교의 시대'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또 지난 40년 동안의 필리핀 선교 환경의 변화를 주로 정치·경제적 배경과 함께 기술하고 있는데, 책에 따르면 필리핀과 한국은 지난 1988년을 기점으로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우호적 관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이 책은 선교전략 측면에서 필리핀 현지 교회와의 협력선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수적으로도 상당히 성장한 필리핀 교회를 선교 사역의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선교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발행인 여상일 목사는 발간사를 통해 "그간 필리핀 사역의 열매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보다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벗어나 교회본질 추구하자"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 저자 박영돈 교수 초청 포럼

박영돈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크리스찬북뉴스 제5회 포럼(북콘서트)이 '새 시대를 위한 한국교회의 회개와 소망'을 주제로 4일 오후 서울 돈암동 광성교회(담임 유종목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도서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IVP)〉을 주제로 열렸으며, 안영혁 교수(총신대 신대원) 사회로 저자인 박영돈 교수(고려신학대학원)가 직접 발제했다.

박영돈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이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셨던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은혜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적 성장을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로 추구하면서 오히려 부패와 세속화로 나아갔다. 사회를 온통 주도하던 성장주의의 대세에 교회도 어느 정도 휘말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적 성장이 진정한 성숙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심각한 타락과 세속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며 "더구나 수적 성장이 인간 성공의 기념탑으로 세워져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외적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했듯,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자원을 집중하고 목회자들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대형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며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의 본질로 여겨 왔던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고 성령이 운행하는 장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본질을 추구하기 부적합한 크기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선교 2세기를 맞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회심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위에 교회 본연의 위치와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웅 기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펜실베이니아 주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 ⓒ페이스북

"동성애 반대 PCUSA탈퇴 결의"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투표성도 1,048명 중 76.5%가 교단 탈퇴에 찬성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대형 장로교회가 6월 26일 미국장로교(PCUSA)를 탈퇴하기로 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원인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차 때문이다.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of Bethlehem) 교인들 3/4 이상은 이날 PCUSA를 탈퇴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가결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더 보수적이며 PCUSA의 동성애 허용 입장에 반발해 세워진 교단인 ECO(Evangelical Covenant Order)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 교회는 공식 페이스북에 "투표에 참여한 1,048명 중 76.5%가 교단 탈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140년 동안 가장 우선순위였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리하이 밸리 지역에 대한 봉사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투표와 상관없이, 모든 교인들이 앞으로 펼쳐질 교회의 신나는 사역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회 당회원들은 지난해 6월 찬성 19, 반대 1로 교단 탈퇴 논의에 들어갔다. 당시 주류 개신교단들 내에는 친동성애적 성향이 증가하고 있었고, 많은 회원 교회들이 이에 반발해 탈퇴 움직임을 보였다.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는 리하이노회에 소속돼 있다. 당초 함께 논의를 진행했던 노회와 교회는,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입장차를 드러냈다. 결국 이달 초 교회는 노샘프턴카운티 민사법원에 리하이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노회 역시 제일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 측은 "노회의 행태는 지역 교회의 결정권과 재산권을 통제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노력"이라며 "탈퇴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드러난 잡음과 새로운 담임목회자 청빙 무효화는 교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움직임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슬픈 노력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베들레헴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美 교계, 백만 명 규모 초대형 컨퍼런스 연다"

'투게더 2016'…7월 16일 워싱턴D.C.에서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대형 컨퍼런스 '투게더 2016'이 오는 7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컨퍼런스의 창립자 닉 홀(Nick Hall) 목사는 예수의 문화를 일깨우고 교회를 선교동력화하기 위한 기도 및 전도 운동인 PULSE를 맡고 있다.

행사 당일 참석자들은 워싱턴D.C. 내셔널몰(National Mall)에 모여, 미국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컨퍼런스에는 닉 홀 뿐 아니라 유명 연설가와 찬양사역자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영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대학 교목이기도 한 닉 홀은, 미국의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될 수 있는 100만 명 규모 무료 집회 개념을 이끌어냈다.

닉홀 목사는 "찬양과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교단 출신의 유명 목회자들, 찬양사역자들,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국적으로 1천 교회가 이미 참가 신청을 했고, 행사 전후로 일주일 간 워싱턴 D.C의 반경 100km 내에서 8,000번의 봉사 기회가 있다.

현재 확정된 참석자(단체)들은 힐송 유나이티드, 카리 조브, 프랜시스 챈, 레크래, 닉 홀, 패션, 크라우더, 커크 프랭클린, 라비 재커라이어스, 제레미 캠프, 앤디 미네오, 마이클 W. 스미스, 로렌 데이글, 크리스틴 케인, 마크 배터슨, 매튜 웨스트, 조 색스톤, 마이크 켈시, 캐스팅 크라운스, 존 K. 젠킨스 경, 조시 맥도웰, 로렐 벙커, 루이스 팔라우, 사무엘 로드리게스, 로니 플로이드, 요크 무어 등이다.

투게더는 오는 7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reset2016.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혜진 기자

"God Bless America 지키겠다"

뉴욕의 한 카페에 걸린 현수막…지자체 조례 때문에 강제 철거 위기

뉴욕 주 펜필드의 한 팬 케이크 카페가 그동안 사용했던 'God Bless America'(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당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 '5마일 카페'는 아침 식사와 카페 주인의 애국심으로 유명하다. 카페 주인인 제니퍼 아퀴노(Jennifer Aquino)는 "우리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카페에 일 년 내내 미국 국기를 비치하고 있다"며 "'가게에 '갓 블레스 아메리카'라는 현수막을 걸고자 해당 자자체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펜필드는 엄격한 현수막 할당 정책이 있는데, 사업가들은 일 년에 총 3주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5마일 카페는 이미 한 해 현수막 게시 할당 시간을 사용했다.

펜필드 마을 감독관인 토니 라파운틴은 WHEC방송을 통해 "현수막 할당을 제한하지 않으면 언젠가 마을 곳곳이 배너로 가득찰 것이다"라며 "마을 거주민들이 현수막을 몇 번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니퍼는 올랜드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기 전까지 카페 내부에 현수막을 걸었다. 이후 그녀는 마을의회로부터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경우 조례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경고 메일을 받았다.

이에 제니퍼는 "마을의 조례에 '현수막를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내릴 수 없었다. 벌금을 얼마든지 내겠다"면서 "특히 미국 전역에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이때, 현수막의 메시지(God Bless America)는 나에게 매우 특별하다. 마을 의회에서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다니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라며 마을 의회에서는 카페의 애국적 현수막 게시를 반대하고 있다.

제니퍼는 "현수막을 내려 달라는 요청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수정 헌법 첫 번째 권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5마일 카페' 페이스북을 통해 그녀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댓글을 달며 제니퍼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며, 일부 손님들은 벌금 내는 것을 돕기 위해 돈을 보태는 등 힘을 더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조례는 값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은 법이며, 만약 현수막를 그렇게 지키고 싶다면 벌금을 지불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니퍼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애국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장소피아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카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엘리 위젤(오른쪽)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홀로코스트 추모관에서 헌화하는 모습. ⓒ백악관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 타계"

〈밤〉, 〈샴고로드의 재판〉 등 저술…1986년 노벨평화상 수상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대량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작가 엘리 위젤(Elie Wiesel)이, 향년 87세로 2일 미국에서 타계했다.

그는 작가이자, 기자, 교수로서 한평생 홀로코스트 증언에 공헌했으며, 지난 2014년 말 〈샴고로드의 재판(포이에마)〉으로도 기독 출판계에서도 알려졌다.

위젤은 아우슈비츠 당시 저명한 랍비 3인이 '신을 기소하고 재판을 벌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

위젤은 1928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15세 때 가족들과 아우슈비츠에 강제 수용됐다. 전쟁 후 고아가 됐지만 파리 소르본대학교를 졸업하고, 1949년 프랑스 월간지 '라 르슈' 특파원으로서 유대국가 이스라엘을 찾았다.

이후 이스라엘 일간지의 파리 특파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1956년 파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회고록 〈밤(Night)〉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회고록에서 그는 "수용소에서의 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공포와 경험, 그리고 목격한 내용들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밤〉 이외에도 수용소 경험을 토대로 평생 60여 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1984년 프랑스 문학 대상, 1986년 노벨평화상을 각각 수상했다.

196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위젤은 시티칼리지 보스턴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노년에도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을 오가며 활발한 홀로코스트 증언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의 타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젤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증오와 편견, 불관용과 싸웠다"며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자신을 서로 돌아보며, 참극이 재발하지 않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는 추모사를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스라엘 국민과 정부는 애통한 마음으로 엘리 위젤을 추모한다"며 "위젤의 활동은 홀로코스트의 암흑 속에서 빛나는 등대의 불빛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러시아 반테러리즘 법안, 종교 자유 제한 심각"

대통령 서명 거쳐 2018년부터 발효 예정

러시아 의회의 양원이 통과시킨 소위 반(反)테러리즘 법안이 가정에서의 종교 모임과 전도를 금지함으로써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명백히 러시아정교회 이외의 종교들을 표적으로 한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201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어드벤티스트리뷰에 따르면, 법안은 주거지역 내 선교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다른 이들과 나누길 원하는 이들은(온라인 포함) 종교협회가 발행하는 특정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75~756달러, 단체는 15,26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된다.

현지 한 교단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집에서조차도 침묵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믿는 자들이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러시아의 종교적 상황은 눈에 띄게 복잡해지고, 많은 이들이 신앙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는 언제나 모든 이들의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다민족·다종교 국가였다. 이 법안을 수용할 경우, 다양한 교단에 속한 수만 명의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러시아 국민 중 70%가 스스로를 정교회 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 교단이나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서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앞서 세계복음연맹(WEA) 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크렘린궁과 러시아정교회의 관계는 구소련의 몰락 후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기 원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일부 바탕을 두고 있다. 1997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 의회는 서양 종교의 선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교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었다.

강혜진 기자

"IS, 방글라데시 수도 식당 테러"

日·伊 인질 등 20명 사망…IS, 자신들의 소행 주장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국공관 밀집 지역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무장괴한의 인질극으로 일본인과 이탈리아인 등 외국인 20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며 지구촌을 경악케 했다.

이번 테러는 방글라데시 군 특공대에 의해 2일 오전 진압돼며 인질 13명이 구출됐지만 민간인이 20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방글라데시 군의 나임 아슈파크 초우드리 준장은 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20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대부분은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난도질당했다"고 밝혔다.

총기와 폭발물을 든 괴한들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레스토랑에 침입해 종업원과 고객들에게 총구를 겨누고 이들을 인질로 잡고 군과 대치했다.

방글라데시 군은 인질을 잡고 있는 무장괴한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진척이 없자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구출작전에 돌입했다.

무장괴한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다카의 외교 공관 지역에 있는 '홀리 아티잔 베이커리' 식당에 총과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난입해 종업원과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경찰관 2명이 사망했으며 민간인 1명을 포함해 26명이 부상했다.

방글라데시 치안 당국은 초기 교전 이후 테러범들과 인질 석방 교섭을 벌였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자 2일 오전 7시 30분께 병력을 식당에 투입, 테러 진압에 나섰다.

무장괴한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 국가(IS)는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면서 연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다카 인질극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24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석수 기자

"IS에 점령당한 라카의 기독교인"

교회는 파괴되고 군인은 참수당해…실상 공개하며 기도 요청

한 기독교인이 IS가 장악한 이라크 라카(Raqqa) 지역에서의 공포스러웠던 삶에 대해 증언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20대 초반의 학생인 존(가명·남)은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와의 인터뷰에서 IS가 라카를 빠르게 점령하던 지난 2014년 1월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IS는 탱크를 끌고 5m 이상 되는 큰 로켓까지 싣고 마을에 들어왔는데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IS 대원들은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망을 가든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지즈야'(이슬람 국가에서의 세금)을 내든지 선택하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

2014년 초반까지 라카에는 1,5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으나, IS가 이 지역을 장악한 후에는 약 50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재산을 팔 수도 빌려 줄 수도 없었던 존의 가족들은 사업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지즈야를 내기로 결정했다. IS가 책정한 지즈야는 한 사람당 약 54,000 시리아파운드였으나 작년에는 3배 이상 올랐다.

지즈야를 내면서 라카에서 살 수는 있었으나, IS의 지배 아래에서의 삶은 매우 끔찍했다. 존은 "많은 만행들을 보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들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한 남성을 공개 참수할 때 나도 그곳에 있었다. 그 남성은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그들은 한번에 이 남성을 참수할 수 없었고, 마침내 총살했다"고 전했다.

또 "IS가 라카에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군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에 질렸다. IS 대원들은 모든 시리아군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내가 매일 다니는 길가에 걸어 두었다. 죽은 시리아군은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고, 그들 중 2명은 기독교인이었다. IS 대원들은 특히 그들의 귀에 십자가를 달아 놓았다. 그 군인들의 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IS 대원들은 교회와 시아파 모스크를 파괴했다. 한 교회 건물은 현재 IS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사제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 없이, 남아 있는 기독교인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해 돌보았다.

그러나 1년 동안 라카에서 살던 그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시리아의 다른 도시로 떠났다. 그는 "라카에 있을 때처럼 전기나 물이 매일 공급되지는 않겠지만, 보다 안전함을 느낀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거리에서 만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라카에 살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IS가 도시를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만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 IS가 도시를 장악한 이후 (살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밝힌 기독교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또한 라카의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남고자 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6월 3일 이후 라카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으나, 도시를 해방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지난 6월 21일 공습으로 최소한 6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최소한 18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남부 반군 세력 지역인 '알탄프'에 러시아 전투기가 집속탄을 투하했다"며 시리아인권관측소가 공개한 사진을 보도했다.

강혜진 기자

"IS, 바그다드 중심부·북부 연쇄 폭탄 테러"

최소 131명 사망, 200여 명 이상 부상당해

이슬람국가(IS)가 3일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부와 북부에서 2차례 폭탄 테러를 저질러 최소 13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슬람국가'(IS)는 인터넷을 통해 이 테러가 시아파를 겨냥해 벌인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FP통신은 차량 1대가 상점가 식당 인근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해 인근 상가가 화염에 휩싸였는데 이로인해 많은 사람이 숨지고 부상을 당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곳은 바그다드의 대표적인 상업 지구로 새벽에 장을 보러 온 이들로 붐벼 인명피해가 컸다.

두 번째 폭탄 테러는 북부 시아파 거주지 알샤브에서 일어났다.

이번 테러는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달 26일 IS의 주요 거점이던 팔루자를 완전히 수복했다고 발표한지 1주일만에 터졌다.

이라크는 지난해 IS 점령지에 대한 공격으로 라마디 시를 되찾았지만, IS는 여전히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비롯한 북서부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하석수 기자

"이라크 IS의 기독교인 박해 심각"

후세인 독재 때보다 훨씬 심각… 기독교인 수 140만→5만 급감

한 인권단체는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과 소수인종들을 상대로 한 이슬람국가(IS)의 박해가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톰슨로이터재단에 따르면 '소수자인권단체'(Minority Rights Group, 이하 MRG) 마크 라티메르(Mark Lattimer) 회장은 "소수자들에게 미치는 IS의 영향력은 대재앙 수준이다. 수만 명의 소수인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터전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3년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 당시 이라크의 기독교 인구는 140만 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 수는 계속 감소해 2015년 10월 애드투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에 따르면 약 30만 명만 남았다. 그러나 MRG는 이 수가 현재 더 줄어서 5~25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넘게 유지됐던 후세인 정권 당시에도 이라크 소수인종들은 다양하게 고통받았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13년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MRG는 주장했다.

기독교인들과 소수인종들에 대한 박해는 2014년 여름 IS가 등장하면서 더욱 증가했다. IS는 모술과 같이 기독교인구가 밀집된 도시를 비롯해 여러 도시들을 점령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비싼 지즈야(이슬람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과한 인두세)을 내고 살든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MRG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상자 수 역시 이라크 주민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수는 외부로 드러난 폭력으로 죽임이나 부상을 당한 이들만을 집계한 것이다. 그러나 무수한 이들이 음식과 물, 의료시설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340만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됐으며, 그 가운데 1/5 가량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보안이 너무 취약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라티메르 회장은 "어느 누구도 집단 학살자이자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소수인들에게 지금 상황이 (후세인 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다. 또 "영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의 이라크 정책과 전략이 실패하면서,고통받는 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2016 미주목회자 십자가의 도 목회자세미나 초청의 글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지난 1년 8개월동안 한국교회 1천여교회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26개국의 선교사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예수님의 기도학교] 전국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펼쳐 가실 목회현장이 오직말씀, 오직기도, 쉽고가볍고 재밌는 행복목회,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십자가의 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십자가의 도" 세미나에 오신다면,
하반기 목양은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신앙, 말씀신앙, 교회사랑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것이며,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안의 영적분위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불같이 살아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의 목회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되어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한 목회를 누리게 될 생생한 은혜의 현장에 목사님들과 사모님, 선교사님, 신학생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도 목차 |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목하라!

제 1과 오직 십자가의 도만 주목하라!
제 2과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라!
제 3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라!
제 4과 십자가의 보혈만이 해답이다!
제 5과 반드시 예수님의 피여야 한다!
제 6과 당신도 죄인임을 주목하라!
제 7과 회개, 방향의 전환이자 성화되어 가는 길이다!
제 8과 회개 없는 당신의 결국은 멸망이다!
제 9과 십자가, 예정된 길이었음을 주목하라!
제 10과 십자가, 시기와 배신의 합작품이었다!
제 11과 십자가, 그 왕따의 현장을 주목하라!
제 12과 십자가, 그 치욕의 현장을 주목하라!
제 13과 십자가, 반드시 당신의 몸으로 져라!
제 14과 그 위에 흐르는 용서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라!
제 15과 십자가, 그 위에 흐르는 사랑을 주목하라!
제 16과 십자가,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만 질 수 있다!
제 17과 십자가, 오직 인내로만 질 수 있다!
제 18과 십자가, 오직 자기 죽음의 길이다!
제 19과 십자가, 반드시 통곡과 피땀을 동반시켜라!
제 20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2016 미주목회자 "십자가의 도"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6년 7월 18일 (월) - 7월 20일 (수)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강 사 : 이영환 목사 (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
장 소 : Bethesda University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등록비 : $ 30.00 (Pay to Order "UBMC")
** 주교재와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등록방법] 인터넷 : UBMCHURCH.COM
전 화 : 714-634-8360 / 714-535-3511
문 의 : 714-535-3511 / 714-634-8360
714-587-0033
이메일 : USA.SONSHIP@GMAIL.COM

주 최 : 미주 장자권 세미나본부
현 찰 : Bethesda Universitv / 베데스다 슈보윽교회

가장 큰 나라는 '페이스북'! 전도 방식 재고해야

마크 앤더슨 콜투올 의장 '미디어 영역' 강조하며 예측과 대응 주문

'콜투올 코리아 선교전략회의 2016'이 6월 27일~7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페이스북입니다. 16억 명이 가입돼 있는데, 곧 30억 명으로 늘 것입니다. 그 말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페이스북에 접속할 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변화시켜야 기독교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상대명령의 완수를 위한 국제적 선교운동인 콜투올(call2all)의 의장 마크 앤더슨 목사는 '콜투올 코리아 선교전략회의' 둘째 날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의 모든 선교전략의 변화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젊은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교전략회의에서는 다음 세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테이블별로 논의했으며, 열방대학 하와이 코나 캠퍼스 훈련 책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선교사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신개념 모바일 성경앱 '소스뷰 바이블 스위트'(SourceView Bible Suite)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마크 앤더슨 목사는 이날 메인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면 지상명령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며 "오늘날 18세 미만의 젊은이가 전 세계에 25억 명 있는데, 반드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와 이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해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50년 전 사용한 방법으로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다"며 "우리는 2020년, 2050년, 또 그 이후 오게 될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크 앤더슨 목사는 최근 콜롬비아를 방문해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피티(graffiti; 공공장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과 낙서 -편집자 주)가 있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전 세계 젊은이가 벽에 그려 놓는 그림은 그들의 선언과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고, 정체성에 다가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열려 있고 굶주려 있다"고 주장했다. 단,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전형적인 복음전도 방식뿐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황화하여, 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앱 SourceView Bible Suite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빨강, 주인공의 말은 초록, 그 외 인물의 말은 파랑, 이어주는 부분을 검정으로 표시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SourceView Bible Suite 소개 동영상 캡쳐

마크 앤더슨 목사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 살지 않으며, 미국의 많은 젊은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서 "많은 젊은이가 교회 활동보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도 그렇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진리를 아는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는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 세계에서 어느 것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미디어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중 '예수 영화'는 1,400여 개 언어로 더빙되어 총 60억 명의 사람이 보았다"며 "성경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활용된 도구가 바로 '예수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든 기술 영역의 도구를 개발하도록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데이비드 해밀턴 선교사는 "새로운 미디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완수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성경 번역과 출판, 배포가 필요한데, 이 세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디지털 기기로 배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님도 종이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양피에 적힌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던 것처럼 기술은 변화한다"며 "이 시대 젊은이들은 전보다 책이나 출판물을 훨씬 더 적게 읽으나 스마트폰은 훨씬 더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밀턴 선교사는 오는 가을에 영어로 출시할 성경앱 '소스뷰 바이블 스위트'를 소개했다. 이 성경앱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빨강, 주인공의 말은 초록, 그 외 인물의 말은 파랑, 이어 주는 부분은 검정으로 표시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인물이 사용한 단어 빈도, 권마다 등장하는 인물 수, 각 권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다. 전 세계의 어떤 개인 또는 단체에서 몇 명이, 총 몇 시간을 성경을 읽는 데 할애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앱은 구글과 비슷하다"며 "구글에서 검색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바꿔 찾고 더 많은 선택사항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성경앱은 한국어로는 2017년 1월 초, 중국어로는 2017년 말 출시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데이비드 해밀턴 선교사(오른쪽)는 이 시대에 성경을 디지털 기기로 배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콜투올(call2all) 의장 마크 앤더슨 목사(오른쪽)는 청년 세대에 맞는 복음 전도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뱅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무료전화 1-877-580-2424 산호세베이 (310)538-3333 LA OC (323) 582-2424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근처)
Tel:(626)203-8008, (562)677-60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101 Los Angeles, CA 90057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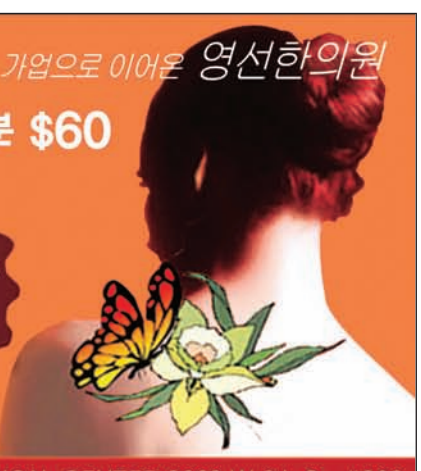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nd St.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지독한 비듬, 두피염증, 가려움증, 탈모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혹,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원형탈모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권혁승 칼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권 혁 승 회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22:3)

신앙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신앙은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와 동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영적 연결고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친밀한 사이였다. 그것은 죄를 범하고 숨어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홀로 거니시면서 늘 함께 산책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던 아담을 찾으신 것이다(창3:9).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17:1)고 명령하신 적이 있다. 여기서 '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히트할레크'는 함께 거니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완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밈'은 '완벽'이 아닌 '순수'를 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은 각자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모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넓으면 넓을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런 개별적 신앙생활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다. 곧 예배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신앙의 개체들이 정해진 시공간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말씀과 찬송이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심 기둥이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면, '찬송'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선물인 말씀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도, 우리가 예물로서의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자리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22:3) 여기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 세 개가 있다.

첫째는 '찬송'이다.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힐라'는 '자랑하다'와 '확신하다'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맘껏 높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계시다'이다. 여기서 '계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야사브'는 '자리에 앉다'는 뜻이다. 찬송은 곧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이다. 의자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 우리들이 앉으면 일반 의자가 되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면 왕좌가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는 하나님께서 찬송이라는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다.

왕좌는 가장 값지고 귀한 재료로 만든 걸작이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좌 역할을 하는 우리의 찬양이 최고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고의 찬양이란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기량을 다하여 최고의 완성도를 이룬 찬양을 의미한다. 찬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적이겠지만,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찬양이 기도의 그릇에 담겨야 완성도 높은 찬양이 된다.

셋째는 '거룩'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쉬'는 '구별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점에서 찬양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만왕의 왕으로 높여 드리는 역할을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가득 찬 구름으로 표현한다. 구름이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곳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로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닫힌 영혼의 문이 열린다. 영혼의 문이 열리면, 그동안 저주로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 '저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라르'는 어원적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풀리면, 질병이 고침을 받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영적 해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찬송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이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깨우침이다. 말씀을 깨우치면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찬송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신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주일예배에서 말씀 선포 바로 앞에 찬양대의 찬양 순서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수희 칼럼(9)

마음의 상처 다스리기(1)

한 수 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며 평생 일어난다.

성폭행, 학대, 유기, 폭언같은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나만 초대받지 못했을 때, 나에 대한 뒷담화가 들려 올 때, 내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몇 번 보낸 문자나 전화에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등등…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열등감에 눌려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픔을 느끼는 것이 두려워 상처를 덮어두기 급급한 사람이 있고, 상처를 정면으로 직시하며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상처를 다루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다.

상처를 다스리는 훈련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피를 흘리며, 작은 종기같은 상처를 암덩어리처럼 키워낼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상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같은 곳에 흉터를 남기기 때문이다.

상처받는 마음에는 심리적 방아쇠(trigger)가 작동해서 우리를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한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학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유난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 그 예이다.

그들에게 있어 상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반응(trigger)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상처에 대한 반응이다.

따라서 그가 느끼는 분노는 지금까지 받은 상처에 대한 총체적 분노이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상처의 전적인 책임자라도 되는듯 분노를 터트리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심리적 방아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위험한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려 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지하고 통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일을 피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분노, 좌절, 모욕감 등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루정도는 유보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판단은 나 자신의 심리적 트리거(trigger)를 살펴보고, 아픈 곳을 들여다본 후에 해도 절대 늦지않다.

대신 그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1)방금 일어난 상처는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나?

무시당한 기분인지, 거절당한 느낌인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인지 혹은 나의 기대가 무너진 실망감인지 내가 느끼는 아픔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나의 분노는 정당한가,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닌가?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민하게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유난히 민감하게 느끼는 부류의 일은 아닌지, 내가 화를 내는 상대가 나에게 만만한 대상이라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3)되살아난 옛 상처가 있는가?

상대방은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과거의 경험이 떠올라 그 상처를 이번 일에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옛 상처와 오늘의 일을 분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4)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은 무엇인가?

상처를 다스리는 훈련에서 무엇보다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나의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숨겨놓고 덮어둔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 여지없이 그 위력을 드러낸다. 때론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들여다 보고 해결해 나갈 때 상처가 다시 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나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을까?

보통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만 희생자인듯 생각한다.

그러나 상처입은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기 위한 폭력적인 형태의 반응일 수도 있고, 아무 잘못없는 상대를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경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의 근원을 치유하려면 나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차단해야 한다.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비염,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 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다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경산한의과병원
3030W, Olympic Blvd., Suite 202, LA, CA 90006(삼호관광몰 2층)
류재규 원장(경산한의과 대학교수) T.(213)380-0853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품성: 미국 인성교육 학습자 편

안주영 | 예영 | 252쪽

'품성이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기치로 1996년 '품성계발'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후 2000년 한국품성계발원을 설립한 저자가, 품성과 보조 덕목을 존중, 책임 등 월별로 제안하여 1년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각 주제 품성을 시작하기 전 경청, 순종, 감사 등 3가지 기본 품성을 한 달 동안 훈련한 후, 적절한 기회마다 복습하면 된다. '지도자 편'이 함께 나왔다.

죄와의 내적 전쟁

제이 E. 아담스 | 브니엘 | 224쪽

잘 알려진 기독교 상담심리학자인 저자가 내놓은 '현대인들을 위한 내 안의 죄 죽이기' 매뉴얼. 요즘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내적 전쟁'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내적 전쟁은 개인적 차원에서 겪어야 할 죄의 유혹이며 최악의 적은 바로 자신이다. 쉽게 털어놓기 힘든 문제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례를 들어가면서 극복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웰컴 홈

존티 올콕 | 생명의말씀사 | 112쪽

일러스트 작가인 저자가 자칫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탕자 이야기(눅 15:11-32)'를 장난기 어린 문체와 함께 정곡을 찌르는 질문들로 각색해, 평소 성경을 읽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움과 즐거움을 전한다. 불신자나 구도자, 새 신자들 즉 '둘째 아들(탕자)'을 향한 권면과 조언도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큰아들'들에게도 깊은 묵상거리를 제공한다.

보좌 앞으로 이끄는 중보기도의 능력

강문호 | 더드림 | 280쪽

중보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중보기도를 할 때 그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본인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기 때문이다.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이를 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목회자나 성도가 정신질환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떡이 불필요하다거나 떡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도가 먹는 떡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목사가 성도의 떡 곧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삶에 적용시켜 전할 수 없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요새 우리 주변에 이슈가 되는 것 중, 심리나 정신적인 것들이 많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거론하는 정신적 문제의 이슈라면 정신질환과 귀신들림의 문제였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잘 쓰인 책 중의 하나를 들면 〈정신병인가 귀신들림인가(김진, 생명의 말씀사)〉이다. 종종 정신병을 귀신들림으로 판단해 환자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 나름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좋은 책이다.

이 이슈를 지금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최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나

토닥토닥 정신과 사용설명서
박한선 · 최정원
에이도스 | 508쪽

가족을 접할 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도와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종종 교회나 가족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나 영적 리더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토닥토닥 정신과 사용설명서〉란 책은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떤 부분은 너무 세밀하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로 고심하는 가족들이나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책이 더 현실적일 듯 싶다. 단순히 이론적 접근이나 외국의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과 같이 병이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상황 속에, 이 책은 마음 깊이 어려움과 고민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회자나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 출판계에서 발행한 책이 아니기에 기독교적 도움이나 상담적 시각은 결여되어 있지만, 목회자도 '떡'에 대해 이 정도 관심은 가져야 하지 않을까?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추천도서]

"열심히 달리다 길을 잃은 설교자들에게"

복음 중심적 설교의 설계와 전달

설교학
줄리어스 킴
부흥과개혁사 | 396쪽

매주 설교하는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설교를 못하는 이유는 설교할 만한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매 주 몇 편씩 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 '설교가 무엇인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진다.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설교의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 같다. 굳어진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전혀 문제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까닭이다.

그런 익숙함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기준의 재확립이다. 설교에 관하여 '바른 것과 옳은 것'을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때때로 돌아가야 할 교과서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설교자가 종종 돌아가야 하는 교과서 같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인데, 저자는 설교자에게 필요한 설교의 이론과 실제 전반을 다 다루고 있다. 하나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분량이 너무 적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 한계로 인해 소개만 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보인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실제적인 제안들이나 예시가 더 많았으면 하는 부분들, 좀 더 선명하게 개념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뤄야 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정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그러하듯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기보다(그 기능을 하는 것은 참고서나 전과라고 불리는 책일 것이다), 꼭 정리해야 할 것들과 가장 선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고 그 목적에 충실한 책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훌륭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설교학' 교과서를 보여주었다.

저자는 설교자의 역할을 왕의 사신(=전령)에서 찾는다.

왕의 사신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교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설교에 있어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가?' 등과 같은, 다양한 설교자로서 하게 되는 질문들에 대해 선명한 답을 제시한다.

필자는 저자의 이러한 정리 대부분이 이제껏 설교자로 살았던 약 15년의 시간 경험상 '옳다'고 생각한다.

설교자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이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설교자의 위대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책의 구성은 1부에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서 메시지를 찾는 방법, 2부에서 본문의 연구 결과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전하는 것, 3부에서 설교 메시지의 구성과 조직의 구체적 제안들, 4부에서는 설교 전달의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내용과 전달 두 측면을 함께 강조하는 저자의 처음 논리를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간다고 할 수 있겠다.

저자는 가능한 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들로 설교학 이론들을 펼쳐 나간다. 신선하고 새롭다는 느낌보다는 전통적이라는 느낌이 더 많을 것이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읽었다가는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신선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2천 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가장 보편적 설교론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특별히 저자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한다며 펼치는 2부 전체 내용은, 오늘 잊혀가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근본적이며 성경적이고 심지어 실천적이기까지 하다는 그의 논리 전개,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방식들에 대한 예를 보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중심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왕이 사신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중심은 늘 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깊이 공감하며 지금 나의 설교나 내가 듣고 있는 설교들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3부에 있는 설교의 설계와 관련된 부분 역시 매력적이었다. 다양한 현대의 이론들과 함께 설교의 구성 부분에 대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마인드맵으로 그러한 설계의 실제를 보여 주었다. 혹여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설교자라면, 이 부분을 통해 자신의 설교의 청사진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당신이 늘 설교하지만 '설교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말을 주저하게 되는 설교자라면, 이 책은 그러한 익숙한 개념들을 선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만약 당신이 설교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나 설교에 있어 초년생이라면, 이 책은 그 설교자의 영광이 어떠하며, 그 영광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설교 전반에 대한 설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유익이 있게 할 것이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선택되었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설교자들에게는 모든 왕의 왕께서 자신의 왕국을 개시하고 세우기 위해 행진하실 때, 그분을 대변하는 일에 관련되는 것보다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수단을 통해서 말이다(269쪽)."

조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이슈&책: 동성애] ①

"에덴동산에는 동성애가 있었나?"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케빈 드영
지평서원 | 264쪽

지난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제17회 퀴어문화축제에 이어, 주일이었던 26일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동성애자들이 각 도시의 중심가에서 '자유'를 만끽하자,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반대집회'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처럼 동성애는 21세기 한국, 아니 전 세계 교계의 가장 첨예하고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성서학자들이 성경 속 '동성애 반대 구절'로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창 19) 등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최근 나온 동성애 관련 도서들을 연속으로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미시간주 이스트랜싱 '유니버시티 개혁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구멍 난 거룩(생명의말씀사)〉, 〈미친 듯이 바쁜(부흥과개혁사)〉 등을 저술한 저자가, 성경적 관점을 토대로 결혼에 관한 전통적 견해를 옹호하고자 펴낸 책이다. 간단히는 '동성 간 성적 결합'을 죄로 믿는다는 입장이라는 말이다.

저자는 소돔과 고모라(창세기)나 레위기, 사사기 등 동성애를 언급하는 구절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창세기 1장을 펼친다.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이 묘사하는 세상, 곧 이성 간에 정상적인 결혼과 성적 관계가 이뤄지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한 남자와 두 여자 또는 한 여자와 두 남자가 결합하는 식의 결혼 제도나 이성 간의 상호 보완 및 자손 번성의 개념을 벗어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정직한 태도로 창세기 1, 2장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적 결합이 성별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의미한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성경 속 태초, 에덴동산에 동성애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사실 이 질문만으로도 충분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거나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들도 많을 것이기에, 저자는 1부에서 원어(헬라어)를 동원해 가며 신·구약의 동성애 언급 구절들을 살펴본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에 대해 소위 '수정주의자'들의 말처럼 '약자에게 관대하지 못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성적 범죄' 또한 에스겔 16장이나 레위기, 신약의 유다서 등과 그들이 제시하는 외경 또는 제2성전기 문헌 등에서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논증하면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말로' 반박하고 있다.

2부에서는 '성경은 동성애를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 종류의 동성애와는 다르다', '폭식과 이혼은 어떤가?', '교회는 상심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가 돼야 한다', '당신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등 동성애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주요 반론들에 대해 '전통적 입장에 서서' 답변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론들은 책에서 확인하되, 이 모두에 답이 될 수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한다. "동성애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 동성애가 세상에 있는 유일한 죄도 아니며, 많은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취급되는 죄도 아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이 옳다면,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성적 부도덕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위험성이 매우 크다(100쪽)."

저자는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고도 분명하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이 아니"라며 "동성애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차고도 넘친다. 이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며,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진리 앞에서 주저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부록에서도 저자는 '동성 간의 결혼은 가능한가?', '동성 간에 느끼는 매력: 세 가지 요소', '교회와 동성애: 열 가지 서약'을 제시하면서 풍성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240면 / 11,000원

안나가? 가나안!
— 소강석 지음 —

신앙의 왜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태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사닥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큼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큼란,큼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For delivery subscription,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July 7, 2016 Vol. 59

'We Need to Re-Envision Community Development'

Leaders Discuss the Need for – and Barriers to – Church Involvement

BY RACHAEL LEE

About 30 Asi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gathered in Cerritos, CA for CCDA's Asian American Leadership Lunch.

How far has the Asian American church community come in the area of community development? According to about 30 leaders of churches, non-profits, and seminaries who gathered to discuss the topic, the Asian American church community still has a ways to go.

The gathering, which convened in Cerritos, CA on June 30, was hosted by the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 (CCDA) as a pre-cursor to its national conference, which will be taking place in Los Angeles in August.

"We want to be a part of God's transformation in this parched land. But how can we keep the flow of God overflowing into our respective communities?" Michael Mata, the Los Angeles Director of the Transformational Urban Leadership Program at Azusa Pacific University, asked those who gathered. "How can we help one another? What are the issues affecting your community?"

As Mata posed these questions, the attendees — gathered in six tables of about five to six — discussed their thoughts.

At one table, the discussion started with some saying that even the awareness of community development is low in the Asian American church community.

"Even talking about community development is hard and a gathering like this is rare to find," said Jane Hong-Guzman de Leon, the education department pastor at Tapestry LA, and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lunch gathering.

"To be honest, I had no idea what community development was until I got involved with the Fuller Youth Institute," Irene Cho, program manager of the Fuller Youth Institute, said.

But now that they have been made aware, they say that they see the need for Asian American Christians to become involved in the community. The problem is spreading that awareness, getting the church community to become interested and involved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determining how exactly the Asian American church community should get involved.

One of the reasons it may be difficult to motivate churches to become more involved with the community is that they "already have their hands full," in the words of Jackson Fong, pastor of student ministries at First Baptist Church of Downey.

What many churches may not realize, however, is that churches can do community development work starting from within their own congregations, the attendees shared. Irene Cho pointed to her own experiences while serving at Korean churches. Members of the congregation faced issues such as getting immigration visas, bailing minors out of prison, and marital problems.

"Having an awareness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having people who are designated for that ministry, could help to provide resources so that church staff won't be burned out trying to do everything," Cho explained.

"For things like getting kids out of prison, or helping people with their immigration documents, many of the church leaders just don't know how to deal with these things," she added.

Though these kinds of needs exist within the congregations, when thinking of doing 'outreach projects' or 'community development,' Asian American church leaders may first think of reaching out to people outside of their church, who live in a different culture and context than their own. This may be impractical, said Jane Hong-Guzman de Leon.

"I think there's a need to re-envision how we can do community development," said Hong-Guzman de Leon. "For example, it's just not practical to expect all of the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to all go out to the ghetto to do their outreach."

"There are two Asian Americas — one is the well-off Asian America, and the other is the non-Model Minority Myth Asian America, the one with financial and other problems," said Jeff Liou, an adjunct professor at Azusa Pacific University an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But these two Asian Americas don't talk to each other."

One way that the Asian American church community can be more inspired to be involved with community development, attendees at a separate table shared, is to have more gatherings of leaders of churches, non-profits, and various fields.

Such gatherings allow for leaders to learn about other churches' and non-profits' work that they may have otherwise not known about, and may spark ideas on how their own organizations can serve the community or partner with another group to do so.

"Seeing examples of how Asian Americans are already doing community development work can serve as models for others to follow," said Sharon Mo, co-founder of For the World ministry, who spoke as a representative of one of the tables.

Another attendee shared an example. Non-profits that offer counseling or support groups for women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or human trafficking may face the barrier of having the women actually seek out those organizations for help. But if a church learned about some of the ways these organizations offered support and built trust — such as holding jewelry or soap making classes — they could offer these programs for their own congregations, where women already feel safe and in community.

"But I think this is a good start," said Shou Mo, co-founder of For the World, "because everyone is being heard."

"It's not a sprint," said Michael Mata, encouraging the leaders to continue their efforts. "It's a marathon."

'Call2All Korea': A New Generation Calls for New Strategies for Missions and Evangelism

BY JIHEE LEE

Prominent evangelical leaders gathered at the Kintex Convention Center in Ilsan, South Korea last week for a mission and evangelism strategy conference called 'call2all Korea Congress.'

Bob Creson, the president and CEO of Wycliffe; Loren Cunningham, the founder of Youth with a Mission (YWAM); Paul Eshleman, director of the Finishing the Task Movement; and Roy Peterson,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were among those who gathered and presented at the conference.

A major theme that was emphasized during the second day of the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June 27 to July 1, was the need for a reconsideration of evangelism and mission strategies for the current generation.

Attendees gathered at separate tables, at which they discussed in small groups the possible and existent strategies to reach the younger generation with diverse methods and technologies.

"If we do not know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today, we will not know what we must do to fulfill the Great Commission," said Mark Anderson during the main presentation. "Today, there are about 2.5 billion people under the age of 18. We must understand what their generation is like, how they think, in order to effectively share the gospel with them."

"Using the methods we used 20 to 50 years ago won't work well with today's young generation," Anderson added.

He pointed to Facebook as an example of the different ways that the current young generation engages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world.

"The largest nation in the world is Facebook. About 1.6 billion people are currently registered, but it may soon increase to about 3 billion registered users. This means the day will soon come whe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be on Facebook," Anderson explained. "And in light of all of these facts, we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how we need to change what we are already doing to more effectively share the gospel message."

Other than the Bible itself, one of the tools that have been used most prevalently to share the gospel is the JESUS Film, Anderson explained, saying that even this is one of the ways that media was used as a tool to share the gospel. He encouraged attendees to seek God's wisdom and guidance on how to develop every possible technology and tool for the cause of sharing the gospel.

Mark Anderson, founder of call2all, spoke at the recent call2all Korea Congress in Ilsan.

Meanwhile, the conference featured various workshops, discussion sessions based on 'spheres' such as education, family, business, and media. The 'spheres' discussions also offered two generational tracks, and separate sessions for business track attendees were also available.

A call2all Congress has taken place almost every year since 2008 in various countires including in Mexico, Thailand, Paraguay, the Philippines, Amsterdam, the U.S., Colombia, and others. However, call2all has not convened in 2014 and 2015.

"You might have noticed we've had a bit of a pause in the last year, year and a half," Anderson explained in a video on the call2all website. "We had to pause and look at what the Great Commission's going to look like in the year 2020, or in the year 2030, or 2033, the anniversary of the Pentecost."

"We are in a Malachi 4:6 movement, where the hearts of the fathers are turning to the sons, and the sons are turning to the fathers," he continued. "The next wave of missions is not just going to be all of us that are older carrying on our activities. We're going to be partnering with this next generation. And I believe they're going to be the largest missions movement that we have ever seen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Providing Fresh Backpacks and Supplies for Foster Children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launches third annual backpack campaign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is running its backpack campaign once again this year, making it the third summer that the non-profit has gathered donations and support to provide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for foster children who face financial difficulties.

KFAM, a non-profit that offers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services and recruiting Korean families to become licensed foster care providers, began this backpack campaign in 2014. Providing students with new backpacks and a fresh set of school supplies prevents them from the potential bullying that they may otherwise receive, organizers say.

Each year, the donation goal has increased. In 2014, the goal was to provide 100 backpacks, while in 2015, the goal was 300. This year, the organization hopes to provide 350 backpacks.

"Every year, through the love and support of the Korean community, we've been able to prepare more backpacks and supplies than we had hoped for," said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FAM. "I hope that many will again give their warm support this year."

As KFAM focuses on recruiting Korean families to be licensed foster care providers and placing Korean children in Korean families, the backpack drive will also prioritize the Asian American students in the foster care system. According to KFAM, some 34,655 children under the age of 19 are in the care of the LA DCF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f which 680 of them are Asian American and 40 are Korean American. About 14 children are Koreans who are not fluent in English.

The non-profit plans to deliver the 350 sets of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in August to the Asian Pacific Project located in West Covina, which manages the Asian American foster care families and children.

Those who are interested can participate by personally purchasing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and delivering them to the KFAM office, or donating financially. A donation of $25 will be used to purchase a new backpack, and a donation of $50 will be used to purchase a new backpack as well as new school supplies. Donations will be received until the end of July.

For more information, visit kfamla.org.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Missouri Church Prepares for Supreme Court Case Hearing

BY CHRISTINE KIM

(Photo: Davis Staedtler / CC)

Both sides in a case concerning a Missouri church's exclusion from a state grant program have filed briefs to the U.S. Supreme Court to prepare for a hearing.

In January, the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it will hear Trinity Lutheran Church's dispute against the rejection of its application from a state grant program by the Missour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DNR) which provides recycled scrap tires to resurface playgrounds.

Trinity Lutheran Church runs a child learning center that is open to the community. In 2012, the center submitted an application to the Playground Scrap Tire Surface Materials Grant Program, which the DNR ranked fifth among the 44 applications. However, the DNR denied the center's application, pointing to the Missouri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the allocation of public money to fund any church.

The church sued and lost in the U.S. District Court in 2013. The Eighth Circuit Court of Appeals also ruled for the state.

In November, the church, represented by 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appealed to the U.S. Supreme Court, which accepted the case.

"Seeking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 while they play tag and go down the slide is about as far from an 'essentially religious endeavor' as one can get," reads ADF's petition.

Erik Stanley, a member of the ADF legal team, says the hearing is expected to take place in October,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Majority of 'Unchurched Americans' Willing to Listen About Faith

LifeWay Research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how often "unchurched Americans" think about faith, the meaning of life, and what their general attitudes are concerning religion.

The study was carried out on 2,000 unchurched Americans, and was sponsored by the Billy Graham Center for Evangelism at Wheaton College. Those people were considered 'unchurched' who had not attended any religious service in the last six months except weddings or funerals, and for holidays.

Of those interviewed, many said that they would listen if their friend talked about religion and that they think often about the meaning of life, but do not care much regarding what happens after death.

As many as 79 percent said that they would not mind listening to a friend who values their faith to talk about it. Some 18 percent said they would mind. About 47 percent said they would discuss religion freely if it is mentioned in a conversation, and 31 percent would listen without responding, but another 11 percent would prefer to to change the subject.

Only 35 percent said that they were told about the benefits of being a Christian, about sin and eternal life.

Most are even ready to come to special events or concerts at church. But only about a third of study participants were willing to go to a worship service on invitation of a friend.

Some 62 percent said that they would attend a church meeting about neighborhood safety, and 51 percent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a community service event. About 45 percent would attend a concert, 46 percent would come to a sports or exercise program at church, and another 45 percent said they would participate in neighborhood get-together at a local church.

Comparatively, a lesser number of people (35 percent) were willing to attend a worship service, a spiritual seminar (24 percent), or a recovery group (25 percent) at church. Most of the people (51 percent) were more likely to accept a personal invitation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rather than door-to-door evangelism (21 percent), postcard (23 percent), TV commercial (23 percent), or a Facebook ad (18 percent).

As many as 43 percent of Americans never think about the question, "If I were to die today, do I know for sure that I would go to heaven?" Some 20 percent said they were not sure of the last time they thought about this, and about 29 percent said that they think about this question at least once a month.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said that asking these kind of questions for evangelism, such as "If you died tonight, would you go to heaven" might not be an effective tool, because this is not what they usually ponder about.

"If the only benefit of being a Christian is that you get to go to heaven, most unchurched people don't care," McConnell said. "It can't be the only way of talking about faith."

He instead suggested Christians to talk about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how it truly molds their life.

A key point that emerged from the research was that when Christians genuinely talk about their faith, more people are willing to listen than is generally assumed, and that people could be invited to those church activities where they are most likely to go.

"Unchurched folks are not being overwhelmed by Christians talking about their faith," said McConnell. "If faith is important to you, then your friends will be interested in hearing about it."

Mississippi Religious Protection Law Struck Down by Federal Judge

A federal judge in Mississippi struck down the state's Freedom of Conscience Act which permitted clerks to decline issuing same-sex marriage licenses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s.

In April, Mississippi governor Phil Bryant signed the bill (HB 1523) into law which said:

"The sincerely held religious beliefs or moral convictions protected by this act are the belief or conviction that: marriage is or should be recognized as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sexual relations are properly reserved to such a marriage; and male (man) or female (woman) refer to an individual's immutable biological sex as objectively determined by anatomy and genetics at time of birth."

"This bill does not limit any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or actions of any citizens of this state under federal or state laws. The legislation is designed in the most targeted manner possible to prevent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lives of the people from which all power to the state is derived," Bryant had said while signing the bill.

It gave immunity to clerks and businesses from lawsuits if they were sued for declining marriage-related services to same-sex couples because of their religious convictions.

On June 27, the federal district court only struck down a portion of the law from Section 3 (a) which dealt with marriage, and did not rule on other parts of the law, including businesses' rights to hire or terminate employees, and sell or rent properties based on religious convictions.

However, on June 30, the court struck down the law in its entirety.

The judge called the law discriminatory, and that the law contradict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Obergefell vs. Hodges, legalizing gay marriage.

"Having reviewed the relevant section of HB 1523, the parties' arguments, and the scop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Obergefell, the Court finds that (Section) 3(8)(a) may in fact amend Mississippi's marriage licensing regime in such a way as to conflict with Obergefell," said U.S. District Judge Carlton Reeves.

All 82 circuit clerks in Mississippi will be given a formal notice of the new rule.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had filed a lawsuit in opposition to the state law on behalf of two homosexual men Stephen Thomas and Nykolas Alford who wanted to marry.

Reeves had earlier overturned the state's ban of same-sex marriage and is expected to soon rule on two other lawsuits over legislation concerning bathroom policies.

Church of England to Discuss Same-Sex Marriage in General Synod

The Church of England will hold a General Synod in York this week where as many as 500 members are expected to come together and discuss same-sex marriage.

The issue has created two wings in the church, one wanting to introduce an authorized service of "welcome" or blessing for same-sex relationships (not necessarily redefining the Church's definition of marriage) and the other which opposes such a move.

The members at the Synod will try to come to a mutually agreeable stand in the private meeting which will extend for three days between July 8 to 10.

However, no conclusion is likely to be drawn during this synod, but a plan will be drawn up which will be discussed again in February 2017 meeting, a source was quoted as saying by Christian Today.

Father Andrew Foreshew-Cain, who is married to Stephen Foreshew, told Christian Today that CofE should accept gay marriages and follow the "shift" that has been happening in society and within the church.

Meanwhile, an evangelical leader who did not disclose his name also told Christian Today that conservatives who do not affirm same-sex relationships are not homophobic, but want to take their stand based on Biblical understanding.

Through the General Synod, Archbishop Justin Welby, head of CofE, is trying to make the groups with differing views to stay together to prevent a split in the church, a report in The Guardian suggested. CofE formally does not recognize same-sex marriage, but has been showing steps of acceptance towards the LGBT community. For instance, the Church of England has said it will soon start a new congregation called 'True North' for LGBT community in August at St. Matthew's Walsall in the Diocese of Lichfield. While a majority of members at the diocese do not affirm same-sex marriage, they say that they want to serve gay congregation to bring then closer to the community of Christ.

However, Welby has shown firm opposition to affirming same-sex marriages, and said in 2014 that that would be "catastrophic."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Father's Day & 졸업시즌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1,000,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u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